

책속인물에게 보내는

제6호

한글손편지

난 너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
있는 너의 다짐이 감동적이었어. 너희반에
못 하는게 없는 새로운 친구가 진학했을 때 했던
이 다짐말이야. '저 아이도 미희한테 왕따를 당하면
어쩌자? 저보다 잘났다는 이유만으로... 아니 이전 그런일
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? 나 임정화는 그 친구가
자기가 되도록 절대로 도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...'
너도 모르게 너의 다짐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. 함께 다짐하
듯 말이야.

친구들이 함께 용기낼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마워. 안녕

2020.8.16.(일)

너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서진이야